

신정현에서 유네스코(WG2)에 오기까지

백영옥 한국환경학회 회장연구소 소장

리우+10이라고 해서 리우에서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의 백영옥 1972년 6월 5일
에서 16일까지 유엔의 스톡홀름에서 개최되었다 유엔인간환경회의에 두고 있다.

지구는 하나뿐 (Only one Earth)이라는 주제로 통일을 한정하는 최초의 대규모
국제회의였다 스톡홀름 회의는 미국주도로 영국이든 냉전 체제하의 핵의 위협 속에서
이웃 나라와 함께 동구와 서구 국가들이 참가한 거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개발도상국
가운데 이 회의 자체를 불신하는 반면 다른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 자세가 다르
다기 때문이라 한다.

그러나 이 회의의 성과는 유엔에서 환경계획기구(UNEP)가 구성되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환경계획기구가 설치되고 환경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 하면
'환경 계획'에 관한 세계위원회 - 일명 '환경 관련 위원회'가 구성되어 (우리의
공동 미래)라는 보서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화두를 도출해 내게 된다.

그로부터 2013후인 1992년 브라질의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 회의
에서 또 한번의 감동인 세계발전을 위한 환경을 어떻게 보전할지, 인류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을 이루기 위하여 하소할 수 있는 행위를 모색했다. 이 회의는 동서 갈등으로 부러진 지구를
향한 냉전 남쪽의 대안 국가들이 이해대화로 지구환경에 대한 위기대응은 같이
하고 나아가는 문제제기를 위한 실천사항의 합의도 중요 화두였다. 이 회의가
경제외교의 장을 넘어서는 이유를 여기에 있다.

이 회의의 결과물은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공식화 하면서 '리우 선언'과 지구의
지속가능발전 21개 원칙을 제시한 리우 선언 '행동강령'인 <의제 21>이 이행 수단을 담보해
내지 못하자 제24차 회의로 이어졌다. 이 행동강령에서는 크게 21개 지구환경 목표를
이제 기원 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들의 채택이 이행수단을 점검하고 도출
하기 위해 유엔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가 설치 되었다.

지난 8월 24일에서 9월 4일까지 남아공의 유네스코(WG2)에서 개최된 세계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WSSD)는 지난 10년간의 의제 21의 이행수단을 점검하고 향후대응을 마련하는
회의였다. 구체적인 활동은 환경 '이행계획'을 채택하는데 27개 행동을 골라
있는 36개국이었던 '지속가능발전' 이행에 관한 국제적 협력관계인 '테코프'라는
협/이사회 등을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

전반 회의가 27일 '이행의 문제'와 '비판론'에 초점을 맞추어 유엔에서
1972년 이래 최고 수준의 환경관련 회의가 빈번히 개최되고 국제협약들이 양산
되고 있음에도 지구환경은 악화일로에 있으며 극심한 빈부의 격차는 지구환경악화를
재촉하고 있다.

리우+15인 1997년 3월 유엔환경개발 총회에서도 환경이 다른 여러 중요한 지구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높았지만 실제로는 의제 21의 이행에 관한 21개 원칙을
합의해 내지 못하자 26일에 브라질 유네스코(WG2)에서 '이행 계획'과 '몬테레이WG2
선언'이 채택되게 되었다. 역시 유감이었던 것은 이번에도 이행을 위한 활동과 일정
정착이 해마다 실패한 채 회의의 약속을 내리게 된 것이다.

회의에 앞서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온 미국이 전도야행하듯이 움직이고
김으로 전방을 흐르게 하기도 했으나 이번 세계의 환경인류가 리우+10 이 아니라 리우-10
대신 리우-20이라고 명명하도록 선택하였다. 당시의

회의의 패착은 같이 내리 시작이다. 지구에서 유래하는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기후변화를 함께 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인간 행태에
앞서도록 지향하고 있는 경제개발국의 행태는 국제적인 의무이행에 전향적
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에 실패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스톡홀름에서 요하네스버그에 오기까지

박영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리우+10이라고 하기도 하는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의 뿌리는 1972년 6월 5일에서 16일까지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개최되었던 유엔인간환경회의에 두고 있다.

‘지구는 하나뿐(Only one Earth)’이라는 주제로 모였던 환경관련 최초의 대규모 국제회의였던 스톡홀름회의는 미국 주도로 열렸으며 냉전체제하의 핵의 위협속에서 옛 소련연방과 동구 위성국가들이 참가를 거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개발도상국가들은 이 회의 자체를 불신했을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력이 자체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이 회의의 성과는 유엔에는 환경계획기구(UNEP)가 구성되며 세계 여러나라에는 환경행정기구가 설치되고 환경관련법 제정을 촉구하는가 하면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일명 브룬트란트 위원회’가 구성되어 <우리의 공동미래>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화두를 도출해 낸 바 있다.

그로부터 20년 후인 1992년 브라질의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과개발회의에서는 인간의 갈망인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핵심 논제였다. 이 회의는 동서갈등으로부터는 자유스러웠던 반면 남북간의 또는 국가간의 이해대립으로 지구환경에 대한 위기의식은 같이 하고 있었으나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사항의 합의도출은 쉽지 않았다. 이 회의가 경제외교의 장을 망설이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이 회의의 결과물을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공식화하면서 ‘리우선언’과 지구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으로서의 21세기 행동강령인 <의제21>이 이행수단을 담보해 내지 못한 채 채택된 것이다. 이 행동강령에서는 국가별 그리고 자치단체별로 의제21을 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들의 해마다의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독려하기 위해 유엔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가 설치되었다.

지난 8월24일에서 9월4일까지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는 지난 10년간의 의제21의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회의였다. 구체적인 목표는 확실한 ‘이행계획’을 합의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정치적인 발판인 ‘정치선언문’과 이행을 위한 국제적 협력관계인 Type II 파트너십/이니셔티브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금번 회의가 그토록 '이행의 문제'와 '빈곤문제'에 ^{총력} ^{기울일} 수 밖에 없었던 것은 1972년 이래 크고 작은 수많은 환경관련 회의가 빈번히 개최되고 국제협약들이 양산되고 있음에도 지구환경은 악화일로에 있으며 극심한 빈부의 격차는 지구황폐화를 재촉하고 있어서이다.

^{리우+5인} 1997년도의 유엔환경총회에서도 실천이 따라주지 않는 한 지구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음에도 ^{의지표명}은 정치적 선언문을 합의해 내지 못했던 경우에 비하면 요하네스버그에서는 '이행계획'과 '요하네스버그 선언'이 채택되기는 하였다. 역시 유감이었던 것은 이번에도 이행을 위한 목표와 일정 설정의 협의가 실패된 채 회의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회의에 앞서 기후온난화에 가장 책임이 큰 미국이 ^{교통의정서} 합의에 물의를 일으킴으로 전망을 흐리게 하기도 했었지만 세계의 환경인들이 이 회의를 리우+10이 아니라 리우-10 또는 리우-20이라고 평가하도록 ^{실망시켰다}.

회의의 폐막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좌우전후를 살피며 국가의 당장의 불이익을 피해보는 것으로 일관했다면 앞으로는 지향하고 있는 경제4강국에 걸맞는 국제적인 의무이행에도 전향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데서 출발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스톡홀름에서 요하네스버그에 오기까지

박영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리우+10이라고 하는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의 뿌리는 1972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개최되었던 유엔인간환경회의에 두고 있다.

'지구는 하나뿐'이라는 주제로 모였던 이 회의는 미국주도로 냉전체제하의 핵의 위협속에서 옛 소련연방과 동구 위성국가들이 참가를 거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그때 당시 개발도상국가들은 이 회의 자체를 불신했을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 회의의 결과는 유엔에는 환경계획기구(UNEP)가 구성되며 세계 여러나라에서는 환경행정기구가 설치되고 환경관련법 제정을 촉진하는가 하면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우리의 공동미래>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화두를 도출해 낸 바 있다.

그로부터 20년 후인 1992년 브라질의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과개발회의에서는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지구를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핵심 의제였다. 이 회의는 동서갈등으로부터는 자유스러웠던 반면 남북간의 또는 국가간의 이해대립으로 지구환경에 대한 위기의식은 같이 하고 있었으나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사항의 합의도출은 쉽지 않았다. 이 회의가 경제외교의 상을 방불케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이 회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공식화하면서 리우선언과 21세기 행동강령인 <의제21>이 이행수단을 담보해내지 못한 채 채택되었다. 이 행동강령에서는 국가별 그리고 자치단체별로 의제21을 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가들의 해마다의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독려하기 위해 유엔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가 설치되었다.

최근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는 지난 10년간의 의제21의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회의였다. 구체적인 목표는 확실한 '이행계획'을 합의해내고 그것을 실천하겠다는 약속으로서의 '성치선언문'과 이행을 위한 국제적 협력관계인 Type II 파트너쉽/이니셔티브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금번 회의가 그토록 '이행의 분제'와 '빈곤분제'에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었던 것은 1972년 이래 크고 작은 수많은 환경관련 회의가 빈번히 개최되고 국제

협약들이 양산되고 있음에도 지구환경은 악화일로에 있으며 극심한 빈부의 격차는 지구황폐화를 재촉하고 있어서이다.

리우+5인 1997년도의 유엔환경특별총회에서도 실천이 따라주지 않는 한 지구환경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음에도 정치적 선언마저 합의해 내지 못했던 경우(비하면) 요하네스버그에서는 '이행계획'과 '요하네스버그 선언'이 채택되기는 하였다. 역시 유감인 것은 이번에도 이행을 위한 목표와 일정 설정은 하지 못한 채 회의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회의에 앞서 기후온난화에 가장 책임이 큰 미국이 교토의정서 합의에 물의를 일으킴으로 전망을 (호리개 한 바 있었지만) 세계의 환경인들이 이 회의를 리우+10이 아니라 리우-10 (또는 리우-20)이라고 평가할 만큼 기대에 못미쳤다.

회의의 폐막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지금까지 국가의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좌우전후를 살피며 국가의 당장의 불이익을 피해보는 것으로 일관했다면 앞으로는 지향하고 있는 경제4강국에 걸맞는 국제적인 의무이행에도 전향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서 출발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